◉ 合格記 (司法試驗)

빈 場

어느 순간 봄이 가득하고 푸르른 잎이 세상 가득 피어나고 빈 空間 있어 네 머물곳 있다면 쓰디쓴 열매 눈물방울 거두어 맺으리라

崔 運 植

1961.8.16.生
대전고교 졸업(80년)
한양대 법대 졸업(85년)
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 2리 288
전화 : (0412) 53-6542

Ⅰ. 프롤로그

제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던 군상들이 어둠 속에 휴식을 간직하는 밤. 한 걸음 또 한 걸음 時間이 준 거리를 채워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다를 곳이지만 갈수록 길은 멀고 밀려오는 人間의 고통은 숱한 얘기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습조차 알 수 없는 달무리 속의 반달, 나의 모습은 북한강 맑은 물을 따라 흘러 갑니다.

남으로 남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에 아직 남은 힘을 모아 터벅 터벅 걸어갑니다.

산을 넘던 時間도 계곡을 따라 걷던 時間도 허기진 배를 안고 도로에 붙어버린 신발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人間의 情.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어둠 뒤 당신이 가고 있는 길만큼이나 내게 소중한 길이고 당신 모습만큼이나 소중한 나의 모습이 아직 희미하게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꺼풀 人間의 가식된 옷을 벗어 버리고 조금 더 솔직한 人間으로 나는 울면서 걸어야 합니다.

비로소 고독의 참된 意味에 接近할수록 나는 오늘도 외로움 속에서 가지 않아도 될 길에 서서 후회섞인 人間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지리하고 조용한 침묵의 行軍이 끝나는 순간 벌거벗은 孤獨한 人間으로서 내가 서 있는 時間의 場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자! 흐름은 역류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가지 않는 길은 빈술잔을 재촉하

고 나의 人間으로서의 성숙한 욕망은 나를 더욱 깊은 고독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글 머리에 제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時節의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읽혀 질 글을 쓴다는 것은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責任感이 必要하였습니다.

특별한 고시체험도 없는 제가 쓸 수 있는 글은 인생역정의 기록이기 보다는 제 자신의 수험생활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고자 합니다.

Ⅱ. 受驗生活

1. 방황기

저의 수험생활의 시작은 再修를 한후 漢陽大 法大에 特大裝學生으로 入學한 1981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選擇이 제게 길어진 受驗生活을 가져다 준 選擇일 줄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록금면제와 생활장학금의 지급은 어린시절 가난했던 제게는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정신적 방황을 가져다 주었고 法大進學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학생활이 가져다 준 것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함께 방황하던 소중한 친구 몇 뿐이었습니다. 85년 大學卒業後 도전한 1次 낙방은 決定的으로 고시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취직을 위해 軍에 入隊하였습니다. 제게는 대학시절이 가장 힘들었고 암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술과 더불어 간신히 하루 하루를 지탱할 뿐이었으니까요.

2. 軍生活

조금 늦게 온 군대 생활은 제게 있어서 人生의 좌표를 정하는데 좋은 機會였습니다.

어린 고참들과의 융화문제 솔선수범하려했던 생활태도는 처음으로 부대내에서 제 자신의 可能性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상급자와 부대원들의 격려 속에서 考試에 대한 當爲性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쁜 보직덕분에 고시에 대한 집념만 키웠을 뿐 공부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3. 도전기

88년 2월 17일 만기전역 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군에서의 고시에 대한 집념이 많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책망, 經濟的인 어려움 등이 더 이상 저를 견디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격려와 친구 종영이의 도움으로 충남대 도서관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 88年

3月 15日부터 1次시험 직후까지 종영이 자취방에서 기거하며 충남대 도서관에 새벽부터 나가 밤 11시 경 돌아올 때까지 1次준비에 전념하였는데 어학인 영어공부가 전혀안된 상태에서 不安함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상대로 7개 정도의 차이로 낙방한 후 공주 황룡대에서 보낸 기간은 고시공부 계속여부에 대한 심한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 원장인 친구 유환이의 도움으로 계속 공부할 마음을 굳히고 1次 不合格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語學을 佛語로 바꾸고 고등학교 自習書인 오증자 교수님 册으로 一回讀을 한

후 고시반 수석조교님이시던 남북현 선생님의 도움으로 10月초 고시반에 입반하게 되었습니다.

10月부터의 특강은 오랫만에 듣는 강의였던지라 열심히 듣고자 애쓰며 특강평가시험을 치루어 상당한 工夫量을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2) 89년

고시특강이 끝난 후 다시 공주 황룡대에 도착하면서 제 의지에 대한 확인으로 담배를 끊고 憲法, 民法, 刑法 등 기본 3법과 佛語를 中心으로 1次 준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후 다시 고시반에 들어와 3月초부터 문제집을 위주로 학교 도서관에 나가며 1次준비에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마 제 수험생활 중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때 저에게 항상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채중훈선배님을 만난 것은 커다란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1次試驗이 끝난 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모든 책은 후배에 주고 난 뒤 2次 준비에 들어갔으나 1次에 한번도 合格해 보지 않았던 불안감이 더 이상 진도를 막았고 닥쳐온 2次시험에 그저 열심히 참가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지만 그때 2차준비에 최선을 다 했더라면 1년이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2차시험 후 그 다음 날 김천 직지사 운수암으로 짐을 꾸려 떠난 후 1달 동안 행정법과 상법 Subnote를 개략적으로 만들고 訴訟法까지 1회독한 후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지만 發表날이 가까워지면서 흔들리게 되어 9月 20日경에야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막대한 費用을 들여 실시하는 特講에 열심히 참석하려 노력하면서 세미나를 併行하며 12月 초순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고시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과 내 나름 工夫方法論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함께 세미나팀을 구성했던 증제 용성 형준 그리고 호순이 등은 어려운 수험생활에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특강기간 中 전과목 受講과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세미나가 活性化되기 시작한 때로서는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모두 자신감에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3) 90년

결전의 한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수험장소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다시 기숙사로 복귀한 후 새벽 6시에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말까지 訴訟法 民法 刑法 商法 行政法을 一讀한 후 다시 세미나팀에 영한선배님과 合流하여 전주 靑木고시원에 내려간 뒤부터 매주 2回씩 시험을 보고 채점과 講評을 계속해 신림동에 있던 5月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식사 후 民法 Case 2문제씩과 行政法下 商法下 刑法各論의 문제를 산책하면서 꼬박꼬박 정리했던 것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과목에 대한 자신감 부여는 다른 과목공부에도 상승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5月초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후 체

력에 대한 不安과 不合格에 대한 걱정에서 열흘정도 책이 잡히질 않아 헤매이던 시간은 제 자신이 그리 초라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미나팀 멤버의 再合流와 효재兄의 도움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 後부터는 Subnote를 中心으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 3회독씩 하면서 서브노트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지막 수험생활의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4) 2次試驗期間中

7月 3日부터 치루어지는 2차시험을 앞두고 열흘前쯤 국민대 뒤편에 하숙집을 정하고 국민대 도서관에 나가며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수험장 분위기에 미리 친숙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험前날 매과목에 대해 효재兄, 그리고 세미나팀과 함께 몇 문제씩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식사시간 때 마다 갖곤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날 윤리문제中 위정척사론이 抗日運動에 미친 영향을 論하라는 문제는 작년에 開化思想과 實學思想의 連繼性이란 문제가 나와서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문제들은 한 번씩 본 기억을 더듬어 쓰고 큰 문제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64點). 헌법에서는 헌법訴願外에는 예상外 문제였고 準Case가 나와 곤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허영 교수님 論文中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를 서브노트에 정리해 놓아 무난히 쓸 수 있었습니다(64點).

둘째날 行政法은 대체로 무난했으나 큰 문제인 行政訴訟의 限界中 내용 몇 개를 빼먹고 쓴 것이 아쉬웠습니다(60.33點). 商法은 어음양도인이 책임을 면하는 方法을 당황하여 영업양도인의 責任으로 알고 초안까지 작성한 後 다시 쓰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흔이 났습니다(65.33).

세째날 民法 큰 문제는 전날 세미팀끼리 얘기하다 이영준원장님 책을 복사해 나누어 보아서 상당히 고득점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56.33). 아마 채점은 세 교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民訴法에서는 평소 관심이었던 부분이 출제되어 욕심이 생겼는 데 이것이 Page 계산을 착오하게 하고 큰 문제를 세장 반 그것도 처음에는 넉넉히 쓰다 한장 남겨 놓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히 쓰는 결정적인 失手를 犯하고 말았습니다(53.33).

마지막날은 合格할 것 같다는 욕심에서 전날 세시간 밖에 못자 무척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刑法은 무난한 문제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67.33). 刑訴法은 큰 문제는 特講試驗에서 본 문제였으나 작은 문제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간신히 法典을 찾아 베끼다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55.33).

刑訴法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온 후 그동안 못피웠던 담배를 피워물고 하늘을 쳐다보니 파란 하늘이 왜 그리 슬퍼보이던지요 홀가분함은 내 가슴에 다른 멍에를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5) 3次시험

2次 發表 후 축하인사를 받다보니 3次試驗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막상 合格人員이 定해지지 않아 무척 不安해지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工夫해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선배합격생들의 3차

대비특강으로 어느 정도 3次윤곽을 잡게 되었고 民法과 刑法 그리고 訴訟法의 기본개념을 위주로 대강보고 갔습니다. 다행히 면접위원님들께서 쉬운 質問을 하시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Ⅲ. 공부方法論

1. 세미나

저의 경우 세미나에 가장 큰 승부수를 걸 정도로 關心이 있었던 部分입니다. 한양대에서는 세미나 운영 자체가 별무했었고 처음으로 二次準備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不安感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미나팀을 構成하는데는 우선 相互間에 信賴가 前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絕對的인 信賴가 없으면 그 팀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후유증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長點으로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보다 많은 效果를 가져다 주고 그 短點으로는 함께 휩쓸릴 수 있는 시간을 많게 해줍니다. 우리 세미나팀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왔지만 주로 擇한 方法은 각자 몇 문제씩 대학노트 2장 분량으로 정리해 복사해 나누어 준 다음 그에 대한 강평을 함께 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며 그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을 지속했습니다. 가장 세미나의 도움을 받았던 일은 공부 분위기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깊이 있는 工夫를 構成員을 통해 可能했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合格에 대한 可能性과 자신감이 더해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負擔感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함께 工夫하는 시간을 잡았는데 처음 세미나할 때는 2시간 정도로 잡고 시험시간은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제선정은 각자 무작위로 세 문제씩 출제하고 돌려 시험을 치룬 다음 채점과 강평을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合格의 상당한 部分을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友情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이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Subnote

Subnote는 그 長點으로는 문제를 요약함으로써 암기에 도움을 주고 工夫量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험 전날 全科目을 一讀할 수 있도록 하는 效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短點으로 Subnote에만 依存하게 되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고 정리된 지식외에는 전혀 答案作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工夫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Subnote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必要하게 되고 작성後에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작성자 자신도 모르게 되어 다시 册을 읽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全科目 Subnote를 작성하였는데 한번에 완벽히 作成하기 보다는 정독한 다음 써보는 정도로 개략을 目次로 잡고 다음번 읽을 때 내용을 조금씩 보충하는 方法을 擇해 5月 초순경에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서브노트만 보는 정도로 마무리하며 암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서브노트 外의 책은 보지 않고 조금은 여유있게 정리가 가능

했던 것도 위와 같은 方法으로 Subnoe를 作成했기 때문입니다. 작성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문제를 선정하지 말고 가장 可能性 있는 問題에 복잡한 문제 비교할 수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60~80 문제 정도 정리했습니다.

3. 敎材選擇

(1) 一次敎材

다른 고시잡지에 실린 합격기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우선 旣出問題를 꼭 풀어보는 것이 必要합니다. 이는 출제내용 분석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집 세권보다는 같은 문제집을 세번 푸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고득점할 수 있는 方法입니다. 문제집 選擇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가장 두꺼운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民法의 경우는 너무 두꺼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유는 1次問題集은 다른 問題集을 참고하여 만들기 때문에 誤答이 적고 최근 경향을 담은 문제집이란 가장 최근에 만든 문제집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2) 2次敎材

교과서는 과목당 한권씩만 선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교수님께서 지술하셨던 점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했습 니다.

헌법 : 교과서—권영성
문제집—강창웅
論文—허영·구병삭
민법 : 문제집—서동우·오관석
문제집—김준호 사례연구선집
論文—김주수·권오승·고상용
刑法 : 교과서—이재상
문제집—김태기·김인주
論文—이재상·차용석·정성근
행정법 : 교과서—이상규
문제집—김남진
論文—석종현·김남진·신보성
상법 : 교과서—최기원
정동윤(회사법)
문제집—상법요론 박민배
민소법 : 교과서—정동윤
문제집—이시윤·김광태·황정근
論文—강현중·이시윤·양병희
형소법 : 교과서—이재상
문제집—백형구
論文—차용석·김희옥
倫理 : 교과서—현대사상과 윤리(국민윤리학회 편)
기타 : 신동아, 월간조선 사회사설과 비평 등과 신문의 사설과 논평 다수 참조.

4. 工夫場所

공부장소로 어느 곳이 마땅한가에 대답은 스스로 구해야 할 것이지만 혼자 工夫한다면 도서관이나 考試院 같은 곳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長期間 工夫하는 데 지치지 않아서 좋고고시원은 단기간 집중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세미나를 하는 경우는 세미나실이 준비된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이 他人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공부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한 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오히려 工夫에 방해되는 수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3개월마다 場所를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듯 싶습니다.

5. 건강관리

시험이 다가올수록 건강에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시험자체를 포기하는 例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시험 한달前까지 축구나 농구 등을 자주하고 식사 후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저의 경우에 막판에 체력에 이상을 느껴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식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생체리듬에 관심이 평소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시험당일에 생체리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가정해서 역산한 다음 33일 前, 28일 前, 그리고 23일 前에는 가장 쉬운 과목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그때마다의 생체리듬을 최고조에 다다른 느낌을 갖도록 제 컨디션을 조정하였습니다.

Ⅳ. 에필로그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보리꽃이 필무렵이면 움켜쥔 허기를 달래주려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의 죽 한그릇 눈물이 담겨 목이 메이던 그 싸라기 한알 한알이 갈증나는 저울 밤을 애처롭게 합니다. 그 따사롭던 어머니의 情은 이제 거칠고 갈라진 손끝 마디마디에서 전해져 시름에 잠긴 고시원 골방의 제 손을 잡아줍니다.

눈이 싸라기 되어 내리는 밤이면 삶에 얽어매어진 쌈지 끈을 풀어서 몇 번씩 접어 간직한 지폐 한장을 쥐어주시던 사랑이 계속되어 옵니다.

상심한 마음에 달덩이처럼 비추어 주시던 어머니의 多情한 눈동자가 있기에 오늘도 꽁꽁 얼어붙은 책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식어가는 고향집 아랫 목에 추울세라 불을 지펴주시고 이불을 덮어 주시던 모습모습이 스치는 추위에 더욱 뚜렷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의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싸락눈 내리는 이 밤 두 볼에 뜻모를 온기가 흐릅니다. (1989.1.7)

세상이 제게 幸運을 주었지만 저는 이 幸運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지난 세월동안 찌든 가난 속에서 언제나 못난 지식에 한을 안고 사신 어머님께 작으나마 효도를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大學生活과 긴 受驗生活을 뒷바라지 해주신 한양대재단과 교수님, 고시반 조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 숱한 세월동안 애벌레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듯이 비록 작은 성취나마 숱한 고통을 잉태한 후 얻어진 것이라면 성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산사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계실 受驗生 여러분의 빠른 合格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같이했던 후배 호순과 소중한 친구 선호의 합격을 바라며 빈 場이란 제목의 글을 마지막으로 적어 봅니다.

추운 바람을 가득안은 나목의 아픔은
쉽게 피어오르지 못하는 이의 슬픔
어느 순간 봄이 가득하고 푸르른 잎이 세상 가득 피어나고 빈 空間 있어
내 미물 곳 있다면
쓰디쓴 열매 눈물 방울 거두어 맺으리라

기나긴 過去의 아름다움이여
내 안타까운 젊음이여
부서진 영혼이여
우리 무엇을 바라
지난 세월을 묻어야 했는가?